Job p/11

신입사원 적응 잘하기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제2967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김명민 이번엔 변호사역

위로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한 뒤 유족으로 보이는 한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께 사죄… '국가안전처' 신설

"켜켜이 쌓여온 비리 반드시 도려내겠다"
박 대통령, 관피아·철밥통 완전추방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벌써 다섯 번째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4일 만이다. 특히 기자회견이나 담화가 아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사과해 '직접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며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 초기에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대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개혁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분향소 안에서 국화꽃 한송이를 들고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천천히 둘러봤고,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다가오자 어깨를 감싸안고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조의록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삼가 고개숙여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분향소의 유가족들과 만나 사연을 들은 뒤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청해진해운 고발 있었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 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 정부가 고발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점검과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현정기자 jhj@

묵념하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한국 설치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29일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COI는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조현정기자 jhj@

주가조작 근절 의지 있나

기자 수첩

김 현 정 <경제산업부 기자>

정부가 지난해 4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일반투자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우려된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만 봐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고발한 뒤, 반 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야 검찰이 김형기 부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단계까지 왔다. 서정진 회장도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될 것이란 전망이 금융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가 재발하는 점도 의문이다. 지난 17일 체세포복제줄기세포 기술 성공소식을 밝힌 차바이오앤이 그렇다.

이 회사 경영진은 신기술 발표를 전후로 보유 지분을 대거 팔아치워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 차바이오앤의 주가는 이날까지 일주일새 무려 20% 급등했다.

공교롭게도 기관투자자 역시 다음날 순매도로 전환해 또 다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일었다.

CJ E&M 사태로 증권가가 실적 등 기업 내부정보를 미리 공유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버젓이 되풀이됐다.

말로는 엄벌하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수사하는 듯 하더니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투자자 신뢰 저하만 가져올 뿐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신속 공조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간이 줄어드는 성과 등도 일궜다. 그러나 향후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뉴스

피해 지원·진상 규명 결의안 통과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 진도 다시 찾아 현장 점검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진도 현장을 다시 찾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범부처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에서 수색과 구조상황을 보고 받았다.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소환

인천지검, '유병언 측근 7인방' 중 한 명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와 관련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로 소환되는 첫 번째 인물이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돈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세월호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도 진행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대피소로 피신하는 주민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29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의 한 대피소로 주민들이 몸을 피하고 있다. /옹진군청 제공

북 서해 NLL 2곳서 사격 훈련

"이때 포탄이라니… 한 민족 맞나" 분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군이 백령도과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상에서 오늘 오후 2시께 사격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지금까지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했지만 NLL 이남으로 떨어진 포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포탄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F-15K 등 전투기 4대를 긴급 출격시켜 초계비행을 했다. 유도탄고속함과 호위함, 구축함(KDX-Ⅰ) 등 해군 함정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백령도 동방인 월래도 지역과 연평도 서북방인 장재도 지역 등 NLL 이북 해상 2곳으로 사격훈련을 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통보한 사격 훈련 지역이 NLL 이북이기는 하나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 사격훈련 구역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위기조치반을 가동했고 대비태세도 격상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사람들은 "북한도 우리 민족 아닌가. 세월호 침몰로 한민족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해야만 했나"며 "같은 민족인지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민준기자

여수 여객선 5척 '운항 중지'

여수해경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관내 여객선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에 문제점을 드러낸 여객선 5척에 수리할 때까지 운항중지를 권고했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선급(KRS),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등과 함께 관내 운항 중인 여객선 21척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수리 후에 운항하도록 하는 '운항중지' 사항이 5개 여객선에서 모두 100여건이나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 여객선 5척에 대해 수리 후 운항하도록 권고했으며, 선사 측에서는 대체선을 운항하거나 자체 보완할 때까지 휴항 신고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또 운항 중지는 아니지만 지적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시정하고 재확인을 받도록 한 사례도 10개 여객선에서 150여건에 달했다.

/윤다혜기자 ydh@

유병언 차명 땅 무려 2천만㎡ <605만평>

김재원 의원 "의성·울릉 옥청영농조합도 소유" 주장

경북 의성과 울릉에 44만5570㎡의 농지를 보유한 옥청영농조합법인도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9일 "유 전 회장이 옥청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경북 의성군 옥산면과 비안면에 17만7073㎡(5만3564평), 울릉군 일대에 22만1625㎡(6만7041평), 기타 청송군 및 군위군 일대까지 포함해 총 44만5570㎡(13만4784평)의 전답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유 전 회장이 보현산·옥청·보성몽중산다원 등 3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울릉도 4개 면 토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유 전 회장이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경북 청송군·울릉군·군위군 일대에 890만㎡,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서초구 염곡동 일대에 5729㎡,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서귀포 일대에 1000만㎡,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보성 일대에 15만㎡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또다른 영농조합법인 한 곳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이를 더하면 무려 2000만㎡(약 605만평)에 이른다.

김 의원은 "옥청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조모씨의 주소지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으로 돼 있어 법인과 토지가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일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옥청영농조합법인의 경우 40억4900만원의 농지 취득을 위해 자본금 20억원과 가수금 16억원 등 총 4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중 자본금과 가수금을 합친 36억원의 출처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불편하지만 29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수돗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다. /연합뉴스

승무원·청해진해운 7차례 통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선장 등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측이 휴대전화로 7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전인 지난 16일 오전 9시1분 세월호 승무원이 인천의 청해진해운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밝혔다. 이 승무원은 생존한 매니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전 9시3분부터 교신이 끊긴 오전 9시37분까지 6차례에 걸쳐 승무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이준석(69)씨와 청해진해운이 35초간 통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청해진해운이 이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들의 통화가 메뉴얼대로 사고 사실을 알리는 통화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논란 '다이빙벨' 재투입 세월호 침몰사고 14일째인 29일 낮 이종인 알파잠수종합기술공사 대표는 사고해역에서 12㎞가량 떨어진, 파도가 비교적 잔잔한 해상에서 다이빙벨 테스트를 마치고 물밖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탑승 파악 안 된 알바생 3~4명

세월호가 침몰한 지 2주가 되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사고대책본부는 승무원 명단과 이들의 생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2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사고대책본부가 파악한 세월호 승무원은 29명이다. 이 가운데 20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나머지 9명은 생사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명단 외에도 방모(20)씨, 송모(20)씨, 오모(19)씨 등 3명의 승무원이 추가로 세월호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체 승무원은 29명이 아닌 32명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외에 승무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방씨는 숨진 불꽃놀이 담당 승무원 김기웅(28)씨와 이종사촌 관계로 현재 생사가 불분명하다. 송씨와 오씨는 다행히 생존해 인천 한 병원에 입원했지만 대책본부는 이들의 탑승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29명 승무원 명단은 진도의 대책본부에서 받았으며 통지받은 것이라서 그 외는 파악 못하고 있다"면서도 승무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4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국세청, 유씨 일가 '숨긴 부동산' 압류

세무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와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작했다.

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씨 일가와 관계사의 세금 추징을 위해 이들과 관련성이 높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관할 세무서별로 지난주부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용산세무서 숨긴재산추적과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노른자쇼핑의 2층짜리 건물의 30.35㎡(약 9평)짜리 옥탑사무실을 압류했다. 이 옥탑사무실의 현재 소유자는 주택건설·분양사업을 하는 트라이곤코리아로 현재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고 대표이사는 유 전 회장의 인척이다. 유 전 회장은 1983년 이 옥탑사무실을 사서 2006년 노른자쇼핑에 판 기록이 있다.

이 옥탑사무실이 있는 상가는 2층 짜리로 대지면적이 1348㎡(약 408평) 정도로 노른자쇼핑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점포는 개인 수십 명이 소유자로 공동등기돼 있다. 노른자쇼핑은 유 전 회장 측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지분관계는 없다. 이 건물 대지의 시세는 평당 1억원 이상이다.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시중은행, 세모신협 등과 지난 30년간 복잡한 근저당설정·해지를 반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한 회사 대부분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며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추징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생존자 사칭' 초등생 적발

'세월호' 생존자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초등학생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수원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은 29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항간에 떠도는 글을 실제처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초등학생 A(12)양 등 1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6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짜 전화도 안터져. 문자도 안되네. 배 안에 있는데 살아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또 다른 초등학생 B군은 '배 아래층에 매점과 게임방이 있다. 지금 학생들 다리가 잘리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법원 소년부 송치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금천구, 깨끗한 거리 조성

서울시 금천구가 청결한 거리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거리에 설치된 시설물과 버스정류장·보도 등에 대한 세척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귀가 버스' 시범 운행

서울시 강동구가 심야시간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 시까지다.

중구, 소아 폐렴구균 접종

서울시 중구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이 포함됨에 따라 5월부터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종은 중구보건소와 중림보건분소, 관내 17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스마트워크 시대 한발짝

근로복지공단은 본사 울산 이전을 계기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스마트워크' 시대에 한발 더 다가섰다.

공단은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논리적 네트워크(망)분리' 등 정부3.0 시대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 사업을 추진, 국내 처음으로 성공시켰다.

지금은 망분리를 통해 출장 중에도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PC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문서 작성, 결재, 고용·산재보험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종묘 특별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종묘' 특별전에서 봄, 여름 제사 준소상이 전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촌 특별전형 6년 거주

고2부터 자격 강화… 예체능 실기 연합평가 실시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농촌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준비를 할 수 있게 대입전형 간소화, 최저학력기준 완화, 대학별 고사 지양 등 전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201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전형 방법 수는 수시 모집 4개, 정시 모집 2개로 제한한다. 특히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를 사용할 수 없고 등급을 사용할 때 정시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기존의 '고교 3년 농어촌 지역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됐다.

학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해 도시 지역 학생이 농어촌 고교에 들어가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또,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교협은 음악·미술·체육·무용 등 전공별로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⅓ 이상을 타 대학교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이건희 회장 149억 최고 서울 단독주택 4% 상승

서울시는 올해 단독주택 35만가구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09%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지난해와 같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명의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소유인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14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원 올랐다.

이번 주택 가격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 3.98%를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3.73%)보다 높다.

가장 비중이 큰 주택은 2억~4억원대로 전체의 46.5%(16만6161가구)였다. 이어 1억~2억원대가 28.2%, 4억~6억원대가 12.1%, 1억원 이하가 5.5%, 6억~9억원대가 4.8%였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2만7641가구 가운데 강남(6263가구), 서초(4402가구), 송파(2674가구) 등 강남3구에 절반가량이 몰렸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DMC 단지 활성화에 힘입어 5.13%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4.97%), 중구(4.96%)가 뒤를 이었다. 강남(4.93%), 서초(4.64%), 송파(4.95%) 등 강남3구도 평균 상승률 이상이었다. 최하위는 동대문구(2.15%)였고 강동구(3%), 양천구(3.08%) 등도 상승 폭이 낮았다.

/김민준기자 mjkim@

윤봉길 의사를 기리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기념관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82주년 기념식에서 역사어린이 합창단이 독립군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여성 리더십' 참가자 모집

서울YWCA는 1~3년차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직장여성 리더십 개발 교육 'Job & 來日 Up'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리더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기관리 역량'과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비롯해 조직의 참여와 리드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 개발, 인적 네트워킹 구축과 관리 기법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빠른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과 여성리더로서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픈특강이 개최된다.

서울YWCA는 이번 과정을 통해 리더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직장 여성들이 조직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딜레마를 극복하고, '여성'과 '리더'사이의 균형을 잡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여성지도자로 커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YWCA 홈페이지(www.seoulyw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women@seoulywca.or.kr)로 보내면 된다. 교육비 65만원 중 55만원을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며 본인은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 여친 살해' 고대생 무기징역

고교 때도 폭행해 입건… "사회서 격리 필요"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대생 이모(20)씨에 대해 "이씨가 앞으로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것은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고등학교 때도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 폭행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윤다혜기자

USAID와 공동사업 추진

코이카는 최근 미국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 담당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와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내용은 ▲가나 및 에티오피아 대상 모자보건 사업 공동실시 ▲미국의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아프리카 전력개발 부문 협력 등으로 이를 통해 우리 민간부문의 국제원조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덕여대, 축제 대신 모금

동덕여대가 진도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인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다음달 예정된 대동제를 취소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총학생회가 세월호 침몰사건의 슬픔에 동참하는 의미로 축제를 취소하고 모금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총동문회도 단원고 학생을 위해 행사비용 1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주산 자격증 고졸자, 서울서 학원 개설 가능

주산 자격증을 가진 고졸자도 서울에서 학원을 개설하거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강사 자격에 주산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학력 구분없이 강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바둑 자격증 소지자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강사에 해당했지만, 주산으로 종목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논의 끝에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01년 이전에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주산 1급 이상이고 3년 이상 개인과외나 공부방 등에서 주산과 관련된 수업을 한 적이 있다면 학원강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여성 나체 촬영 인터넷 올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이 모텔·DVD방·오피스텔 등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모습 등을 11차례에 걸쳐 촬영,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대형돔' 설치

3만2000t 규모 방사능 차단 위해… 1조5500여억원 투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차단을 위해 건설 중인 대형 돔. /연합뉴스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히는 옛 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초대형 금속 돔이 설치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체르노빌 원전에 3만2000t 규모의 대형 돔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설치 작업은 프랑스 건설회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맡았다. 돔은 화학업체 듀폰사가 개발한 불소수지 '테프론'으로 제작됐다. 돔의 규모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부지 전체를 뒤덮을 수 있을 정도다. 설치 비용은 약 15억 달러(약 1조5518억원)다.

돔이 완성되면 체르노빌 원전이 다시 붕괴하더라도 방사능 관련 물질이 외부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대형 돔은 엄청난 규모 때문에 체르노빌 참사의 상징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제2의 체르노빌'로 불리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피난 구역' 지정을 처음으로 해제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원전에서 20km 이내에 있는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미야코지지구에 대한 피난 지시를 해제했다. 2011년 '3·11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피난지시 지역 전체 주민 가운데 360명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돌아가기를 꺼리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스타워즈 헌혈' 2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적십자사에서 영화 스타워즈 팬들이 등장 인물의 의상을 본 떠 만든 복장을 한 채 헌혈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영국 고교 14세 학생 60대 교사 살해 '충격'

영국 고등학교에서 60대 여교사가 학생의 칼에 찔려 사망,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웨스트요크셔 경찰은 28일(현지시간) 리즈 인근 가톨릭 학교에서 주임교사 앤 맥과이어(61)를 살해한 15세 남학생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생인 용의자는 범행 직후 교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여러 차례 칼에 찔린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범인을 상대로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격적인 살해 소식에 영국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국 총리실은 피해자 가족과 학교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선미기자

"아이디어 필요하면 걸으세요"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창의력 돋보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걷는 것이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실제로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 등도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심리학회 의학저널 실험심리학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은 대졸자 176명을 대상으로 걸을 때와 앉아있을 때를 각각 구분해 창의력을 측정하는 질문들을 던져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 걸을 때 창의력이 돋보이는 답변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걷는 동안 창의적인 응답이 나왔다.

특히 실내에서 걷거나 러닝머신 위를 걸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연구진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거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최소한 실내에서라도 걷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생활 속에서 걷기와 같은 활동을 습관화하면 육체는 물론 정신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아이 작문 공부위해 山 빌려

metro HongKong

열성 엄마 교육법 화제

자녀 교육은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계책'은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중국에서 자녀의 작문 숙제를 위해 산을 빌린 '열성 엄마'가 화제다.

충칭(重慶)시에 사는 간린(甘霖)은 원래 영어교사였다. 하지만 딸 텐텐(恬恬)을 낳은 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해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뒤 그는 작문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딸 하나만 가르치니까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고 또 엄마가 가르치다 보니 아이가 숙제도 잘 안 했다. 그래서 무료로 같이 배울 학생 6명을 인터넷에서 모집했다. 그룹 학습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

첫 학기는 인물을 주제로 작문을 했다. 가족, 친구들에 관한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썼다. 이번 학기에는 자연에 대한 작문 수업을 시작했다. 첫 수업의 주제는 꽃이었다. 아이들의 작문은 훌륭했다. 하지만 그는 내용이 전부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됐다. 꽃을 관찰해본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간린은 고민 끝에 지난 달 베이베이구에 있는 산을 하나 임대했다. 과일나무, 채소, 들풀이 있는 산이다. 그는 "이곳이 딸의 성장 발판이 되길 바란다. 딸이 풀도 뽑고 나무도 심고 감자도 캐면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린은 딸이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지 농민을 선생님으로 모셨다. 그는 "채소나 과일이 열리는 시기, 수확하는 시기 등을 배우고 직접 느끼면 딸이 '진짜 글'을 쓰고 날씨 등 자연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충동적으로 산을 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을 체험학습장으로 만들 생각이다. 딸의 교육에서 시작했지만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아프리카 동물 위한 '인공 사바나'

metro France

프랑스의 한 동물원이 아프리카 동물들을 위해 약 1만5000평 부지를 확장했다.

지난주부터 툴루즈의 동물원엔 아프리카에서 온 하마 두 마리와 코끼리 세 마리가 새로운 식구가 됐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새로운 동물들이 생활하는 1만 5000평의 대규모 녹색 부지가 관람객들에게 공개됐다. 이곳에선 기린과 비비류 원숭이도 함께 볼 수 있다.

자동차를 타고 공원 내부로 들어가면 빽빽한 숲이 펼쳐진다. 사바나를 연상시키는 평원 속엔 동물들이 드문드문 눈에 띈다.

동물원 홍보담당자 엘로디 다 코스타는 "동물들이 실제 자연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공원과 코끼리 거처를 이어주는 긴 다리는 동물의 운동을 돕는 기능을 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늪지대엔 하마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인공 바오밥나무와 아프리카 풍의 인공 바람도 눈에 띈다.

엘로디는 "이곳에 있는 모든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동물들이 번식에 성공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디피레네 지역에서 가장 큰 이 동물원은 오는 2015년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따로 모아 새로운 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퐁 기자·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1964.77 (-4.49)

코스닥 556.97 (+0.01)

금리(국고채 3년) 2.8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30.60 (-4.40)

뉴스&뉴스

자연산 광어 29일 서울 한강로동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자연산 광어를 소개하고 있다. 가격은 9800원. /신세계 제공

경상수지 25개월째 흑자

● 경상수지가 25개월째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73억5000만 달러로 전달(45억달러)보다 28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2월 2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로 2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51억3000만 달러 규모다. /김민지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라

●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126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다만 수도권은 -0.7%로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 지방5대광역시와 지방 시·군이 각각 2.9%, 2.6% 상향조정됐다.

지역별로는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는 오른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인천(-0.2%) 등 7개 시·도는 내렸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가격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 1, 2, 7위를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은행 예금금리 연 2.6%… 사상 최저

은행 예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은행의 예금금리는 전달(2.63%)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연 2.6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6년 한은이 금리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부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를 통해 정기예금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대출금리는 고금리성 신용대출 취급 확대 등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 상승 여파로 4.46%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4.45%)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 차이는 1.86%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확대됐다.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13%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4.6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떨어졌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53%포인트로 전월보다 0.01% 줄었다. /김민지기자 minji@

신용카드로 환율 우대 챙기자

황금연휴 금융 혜택 풍성… 마일리지 적립도 2배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5일 어린이날과 6일 부처님 오신날까지 최장 6일 동안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다가오면서 국내외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이런 소비자를 겨냥해 환율우대 및 해외 가맹점 할인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가오는 황금연휴, 신용카드 단 한장으로 알뜰하게 쓰고 알차게 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환율 우대부터 챙겨야 한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오는 6월 5일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90%까지 환율을 우대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매일 선착순으로 9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는 환율 쿠폰은 휴대전화·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영업점에 제시하면 된다.

여행지는 카드사와 연계된 사이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삼성카드3'로 자사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예매시 국내선 5% 할인, 국제선은 최대 7%까지 할인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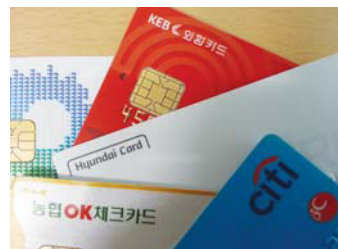
비씨카드도 5월까지 BC라운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을 예약하거나 결제한 고객들에게 해외패키지 여행은 최대 12%, 전 세계 해외호텔 20% 등의 할인혜택과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준다. 하나SK카드의 여행 특화 서비스인 '하나SK스마트 여행서비스'는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국내 항공권 할인 혜택과 주유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을 제공한다.

연회비 없이 체크카드만으로 해외에서 즐기고 싶다면 씨티은행의 국제현금카드와 하나SK비바 체크카드를 주목할 만하다.

하나SK카드의 '하나SK 비바2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때 비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1.0%만 내면 되고, 카드사가 따로 부과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된다.

마일리지 적립과 발레 파킹 등의 할인 혜택도 있다. 우선 비씨카드는 세계 어디서나 1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월드와이드(Worldwide)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6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해외에서 비씨은련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결제시 결제금액의 10%(월 최대 5만원)를 할인해준다.

씨티카드도 5월말까지 해외·여행업종 사용금액에 대해 기존 적립 외에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혹은 씨티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해 최고 2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의 '로블(ROVL) 아시아나카드'를 이용하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함께 인천공항과 주요 특급호텔 무료 발레파킹을 비롯해 제휴여행사 할인도 가능하다.

외환카드는 '소리'를 테마로 한 '외환카드 새봄맞이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행길에 들려 드리는 휘파람 소리' 이벤트는 파인리즈리조트 최대 75%할인 및 제주 여행 5% 할인을 제공한다. '해외 하늘길에서도 봄의 소리' 이벤트는 외환 크로스마일카드로 결제 시 해외항공권을 최대 7% 할인해준다. 여기에 여행 시 외환 크로스마일카드를 사용하면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국내외 카드 사용액 1500원당 1.8크로스마일을 적립받을 수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환율 2008년 8월이후 최저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4.4원 하락한 1,03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1일 기록한 연저점(종가 1035.0원)을 갈아치운 것으로 2008년 8월 8일(1027.9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합뉴스

건설경기 바닥 지났나

현대·삼성 등 실적 양호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거둔 건설사들이 올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어닝 쇼크를 기록한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부실을 털어내고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상장 5대건설사가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작년에 이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대건설은 1분기 매출 3조2906억원, 영업이익 18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0%와 5.0%가 각각 증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매출 3조3565억원, 영업이익 1103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각각 29.6%, 80.2% 성장했다.

2013년 연간 1119억원, 4분기 5783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대우건설은 올 1분기 119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1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서도 9.3%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2.0% 증가한 2조730억원을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작년 동기에 견줘 14.4% 줄어든 2조1543억원의 매출과 55.9% 빠진 54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전 분기 3195억원의 적자와 비교해서는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GS건설은 올 1분기에도 183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6분기만에 최소 손실액을 기록했다. 매출은 20.6% 증가한 2조406억원을 올렸다. 특히 매출 총이익이 2분기 연속 흑자(520억원)를 기록하며 이익 개선세를 지속했다. /박선옥기자

<Knock-in>

ELS 낙인 알면 주가 보인다

포스코·삼성증권 불확실성 해소… SK이노·GS 만기 임박

3년 전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이 올해 대거 만기를 맞으면서 원금손실 구간인 낙인(Knock-in)을 맞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1년 코스피가 장중 22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박스권 장세에 갇히면서 종목별로 낙인 우려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포스코의 주가는 ELS 개별 종목의 낙인 발생에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10거래일가량 하락하면서 20만원 후반대로 내려왔다.

당시 포스코를 기초 자산으로 종목형 ELS가 발행될 당시 주가가 최고 48만원을 웃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삼성증권은 이보다 앞서 2월 초와 3월 중순에 두 차례에 걸쳐 낙인이 발생하면서 2011년 최고 9만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지난 3월 3만5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ELS는 상품구조상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간이 연장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1년 이후 3년간 지수가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당시 발행된 ELS는 조기상환 조건도 맞추지 못하고 그렇다고 원금손실 구간인 낙인 배리어(Knock-In Barrier)에 닿지도 않아 만기까지 상환시기가 미뤄졌다"며 "지수가 급락하긴 쉽지 않지만 개별 종목의 주가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낙인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포스코와 삼성증권의 낙인은 지난 3월로 지나갔으므로 당분간 ELS 낙인 물량 부담을 겪을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올 상반기 ELS 만기는 증권, 화학, 조선, 철강 업종에 몰렸다면 오는 7월 이후에는 정유, 화학 업종에 나타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만기가 임박한 종목은 오는 5~6월 만기가 돌아오는 SK이노베이션과 GS, 삼성중공업 등이다.

그외 현대중공업과 OCI, 두산인프라코어 등은 이미 낙인 배리어에 닿았으므로 연내 고객이 만기금을 찾아갈 때 물량 부담이 우려된다.

김 연구원은 "이들 종목에 대한 접근은 만기 도래분이 줄어드는 시점 이후가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지수형 ELS가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주 중심으로 발행된 종목별 ELS에서 낙인 배리어인 기초자산의 50%까지 급락하는 업체가 나오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국내지수형과 국내종목형 ELS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국내지수와 해외지수를 연계한 ELS에 수요가 몰리는 추세다.

최근에는 낙인 배리어를 기초자산의 40%로 완화한 ELS 신상품들도 등장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지수와 국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계한 ELS의 경우, 국내지수형 ELS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며 "장세가 좋지 않다보니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지수형 ELS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모피아·금피아' 없앤다

금융권 낙하산 금지

최근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권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산하기관들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모피아와 금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고위직의 금융사 이동이 올스톱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이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로 사실상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는 불투명해졌다.

향후 퇴임해 금융권으로 나가려던 금감원 임원들과 금융위원회 간부들도 손발이 묶이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에 관료들이 최고경영자로 내려온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금융사로 이동은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과 경제 전문가인 관료들이 산하기관이나 금융사에 못 가면 결국 정치인들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정보유출 사고에도 더 긁어

체크카드 사용 승인액증가율 최근 5분기 최고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카드승인액 증가율은 최근 5분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승인금액은 136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최근 5분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3조1900억원 늘어난 48조5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과 올해 1분기 카드승인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며 "소득여건과 소비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카드 사용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10.6%)과 유통관련업종(11.9%) 등에서 카드승인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편의점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1조3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28.1%) 상승했다.

공과금 서비스업종의 카드승인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나 증가한 4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달리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납부 마감일이 속함에 따라 세금 납부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택시(37.2%)와 고속버스업종(19.5%)도 요금 인상에 따라 카드 증가율이 상승했다. 다만 주유소업종(-4.0%)은 휘발유 등 유가하락에 따라 감소했다.

한편 카드종류별로는 합리적 소비성향의 확산과 체크카드 활성화 방침 등에 따라 체크카드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총 9조37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8800억원, 25.1%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9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조3100억원,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4.8%에 비해 하락한 반면, 체크카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10.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체크카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용카드는 비교적 결제금액이 높은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소액결제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선호되는 종류의 카드가 다르다"며 "체크카드의 경우 약국, 슈퍼마켓 등 생활밀접업종에서 특히 높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이탈리아 전통 에스프레소 맛 보세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커피브랜드 '까페이탈리아'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념해 다양한 커피머신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4대 금융지주 실적 우울

부실기업 여파에 '직격탄'

올해도 부실 기업이 4대 금융그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실적이 곤두박질친 지난해의 상황이 올해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각각 3735억원, 19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억원(9.2%), 955억원(33.1%) 감소했다.

하나금융은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추가 손실에 따른 충당금 655억원을 적립했고, KB금융도 적지않은 금액을 쌍용건설 관련 충당금으로 쌓았다.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 등의 1분기 대손 충당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은행들이 제때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9년 0.56%, 2010년 1.07%, 2011년 0.84%, 2012년 0.92%, 2013년 0.88% 수준이었지만, 올 1분기 들어서는 1.32%에 이른다. 하나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4% 수준이었지만 1년 만에 0.7%대로 급상승했다.

현재 산업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대·한진·동부그룹도 은행들에는 큰 짐이다. 채권단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대그룹 지원에 쏟아부은 돈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해운업 부실이 더 심해졌다"면서 "올해도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이나 연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법안' 본회의 통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0억원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스마트폰' LG '가전'이 살렸다

1분기 실적 선방…2분기엔 월드컵·계절적 특수 기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계절적 비수기 속에도 휴대전화와 TV부문 수익성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53조6753억원, 영업이익 8조4888억원, 당기순이익은 7조5744억원을 올렸다.

2분기에는 IT 사업 비수기가 지속될 예정이지만 TV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특수, 메모리와 디스플레이(DP)는 신규 모바일 제품 출시 등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무선과 메모리 사업을 중심으로 호실적을 보였다.

반도체 부문(DS)은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소폭 줄었지만 생산 효율화에 따른 원가절감, 고부가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IT모바일(IM) 부문은 갤럭시S4, 갤럭시 노트3의 견조한 판매와 갤럭시 그랜드2, 갤럭시 에이스3 등 중저가 판매 호조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또 마케팅비의 효율적 집행과 무선 매출 1% 수준에 달하는 일회성 비용 정산이 발생, 스마트폰 판매 확대 효과와 함께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늘었다.

소비자가전(CE)부문 역시 TV는 계절적 비수기로 전분기에 비해 수요가 감소했으나 선진 시장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생활가전은 비수기와 신제품 출시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분기보다 실적이 감소했다.

LG전자는 1분기 매출액 14조2747억원, 영업이익 5040억원, 당기순이익은 926억원을 나타냈다.

LG전자의 1분기 실적 호조는 TV와 휴대전화 부문이 견인했다. 홈엔터테인먼트(HE) 부문은 매출 4조9473억원, 영업이익 24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2146% 증가했다. 특히 초고화질(UHD) TV, 올레드 TV 등 대형 프리미엄제품의 판매 호조와 원가 개선 등 영향이 컸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 부문은 1분기에 123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데 힘입어 매출 3조4070억원, 영업적자 88억원을 기록했다. G2, G프로2, 넥서스5 판매 호조로 1분기 LTE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1년 5월 첫 LTE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500만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판매량에 힘입어 비수기 진입,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하락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과 원가 경쟁력 확보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을 축소하며 수익구조를 개선했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양사 모두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분기에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인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 TV부문을 중심으로 특수가 기대되고 에어컨, 제습기 등 계절적 영향에 따른 생활가전 제품을 앞세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통3사 1분기 장사 '울상'

보조금 경쟁·영업정지 여파

이동통신 3사 1분기 실적이 보조금 경쟁과 영업정지 여파로 울상을 지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난해 실적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1분기 성적표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올해 1분기 매출액 4조2019억원, 영업이익이 2524억원, 당기순이익은 267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했다.

LG유플러스 역시 1분기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28일 1분기 매출액 2조7804억원, 영업이익 1132억원, 당기순이익 2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8.1%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실적 악화는 1분기 양사의 지나친 비방전 속의 보조금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이상 상호 비방전과 함께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마케팅비용을 쏟아 부었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 악재도 겹쳤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사상 초유의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6시간 이상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1분기 실적엔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지급 비용이 포함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KT는 30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KT 역시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KT는 영업정지 여파와 함께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악재가 겹치며 올 1분기에도 영업이익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이 지나친 경쟁속에 부진했지만 2분기엔 영업재개로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카메라야 스마트폰이야?" 삼성전자가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레드 닷 디자인 뮤지엄에서 '삼성 미디어 데이'를 열고 카메라 특화 스마트폰 '갤럭시K 줌'과 프리미엄 오디오 기기 '레벨'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할아버지 폰 열면 손자사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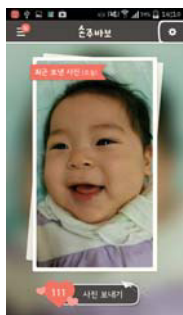
키위플, '손주바보' 앱 출시

손자·손녀의 성장 사진으로 손쉽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바일 서비스 기업 키위플은 할아버지·할머니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원하는 사진을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손주바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모님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면 별도로 실행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화면을 통해 손주들의 사진과 메시지를 수시로 볼 수 있다.

첫째네·둘째네 등 가족별로 사진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가족이 사진을 주고받을 때마다 '하트'가 생성되며 '하트'를 많이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면 무료다.

키위플은 다음달 24일까지 외식상품권, 뽀로로 테마파크 이용권, 영화·공연 관람권, 기프티콘 등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국명기자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기술 '쌩쌩'

토요타, 전기모터 2개로 구동·발전 동시에

전 세계 자동차업체들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토요타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일찌감치 선봉에 나서 친환경차 분야의 강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내놓고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토요타가 지난 97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다. 토요타는 친환경차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는 현재도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 하이브리드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토요타는 최근 국내 기자를 대상으로 '토요타 하이브리드 스페셜리스트 아카데미'를 열고 자사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의 초점은 이론을 얼마나 실전에 응용하느냐에 모아졌다. 특히 이번 코스는 서울 성수동에서 출발해 강원도 정선까지 7시간 동안 474km를 오가는 강행군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됐다.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출발한 이번 시승에서 기자는 캠리 하이브리드를 먼저 탔다. 서울 성수동 토요타 트레이닝센터를 출발해 문막휴게소까지의 구간은 통행량이 많고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므로 연비 위주의 주행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다. 그래도 캠리 하이브리드는 23.1km/ℓ의 뛰어난 연비를 기록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THS)은 여타 하이브리드카와 달리 두 개의 모터 제너레이터(MG)를 사용한다. 덕분에 하나의 모터가 구동을 시작할 때 또 하나의 모터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카를 운전할 때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 연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자가 기록한 연비는 28.6km/ℓ였다. 프리우스의 공인연비 21.0km/ℓ를 뛰어넘었음은 물론이고 이 구간을 달린 참가자 중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tvN
회춘누아르
꽃할배
수사대
평균나이 70 29세
짱짱한 할배들이 떴다!
매주 금 밤 9시 50분 · 5월 9일 tvN 첫 방송
연출 김진영 극본 문선희, 유남경 기획 tvN 제작 SSD
이순재. 변희봉. 장광. 김희철. 이초희. 김응수. 박은지

경기 살아나나···재계 5월 전망 '맑음'

수출 호조로 흑자 지속…中 경기둔화 악재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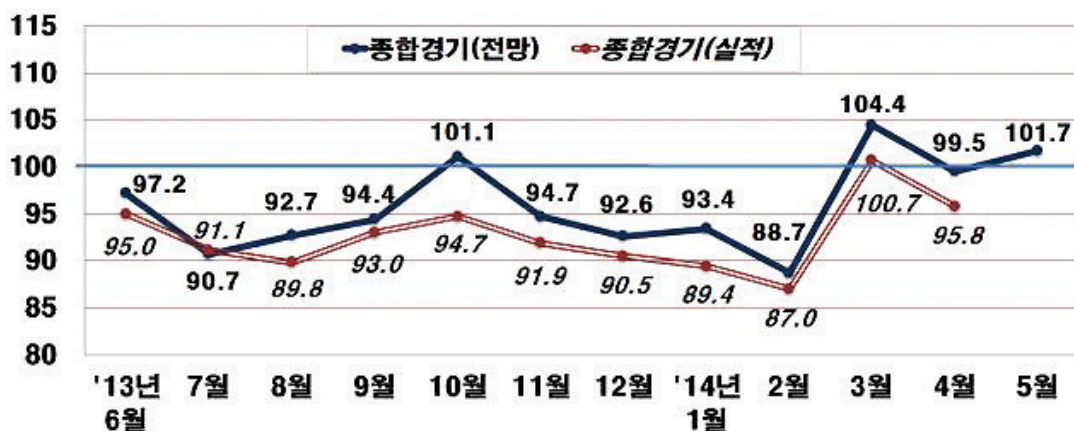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국내 내수시장 위축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5월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분기 경기가 회복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5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101.7을 기록했다.

BSI는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해 지수화한 지표다.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과 전망,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해 경제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한다.

재계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요인으로,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증가한 497억6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무역수지는 41억9000만 달러 흑자로, 26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또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뚜렷한 경기 회복세 국면을 타고 있다. 1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해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설투자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역시 각각 전기대비 4.8%, 7.5% 증가했다.

위험요소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36.0원으로, 5년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국의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로, 2분기 연속 증가폭 하락 및 연간 성장 목표치인 7.5%를 하회했다.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무역수지, 국내총생산 등 국내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이어가 기업의 경기전망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과 중국의 경기 동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내수활성화와 규제개혁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돼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문별로 전망치를 살펴보면 내수(103.8)·수출(101.0)은 긍정적으로, 투자(99.4)·자금사정(98.5)·재고(103.5)·고용(97.5)·채산성(99.6)은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 경공업(109.5)의 경우,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15.0), 음식료(111.1)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호조세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102.7)의 경우에도 도·소매(114.9), 지식 및 오락서비스업(114.3), 운송업(110.3)을 중심으로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중화학공업(98.7)은 석유정제 및 화학제품(93.0), 자동차·트레일러 및 기타운송장비(81.8)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1분기 신설법인 03년 이후 '최다'

올해 1분기 새로 설립한 법인 수가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29일 '2014년 1분기 및 3월 신설법인 동향' 자료에서 1분기 신설 법인 수가 2만76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8984개보다 9.4%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1만9238개와 비교해도 7.9% 증가했고, 분기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 2만개를 돌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3.2%(4807개), 도·소매업 20.7%(4303개), 건설업 11.4%(2360개), 정보서비스업 8.2%(1703개)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제조업(14.9%↑), 건설업(13.7%↑), 서비스업(6.2%↑)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자본금 규모로는 1000만원 이하 신설법인(15%↑)이 가장 많이 늘었다. 신설법인 가운데 1000만원 이하 법인 비중은 1분기 기준 2011년 25.8%, 2012년 29.9%, 지난해 33.7%, 올해 35.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들어 정보·기술 서비스업이 창업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수출 상담하는 기업과 해외바이어들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 2014'에서 기업과 바이어 관계자들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상반기 최대 규모의 수출 상담회로 국내 약 3000개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63개국의 바이어 461개사가 참가했다. /연합뉴스

재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때 강제금 부과…산업현장 혼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을 폐지하고,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계는 그간 이런 제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기업내 보육수요가 미미함에도,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강요받으며 경영상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공청회 등 심도있는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입법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재계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회는 보육수당의 폐지가 기업 보육지원 제도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사내 보육만을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보육수당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보육지원 제도'로 꼽을 만큼 수요가 높다"며 "이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직장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는 수당을 통해 개개인의 편의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길 원하는 선호가 반영된 결과인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가 '보육수당'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근로자의 반발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균기자

한화L&C, 하이브리드 범퍼 빔 개발

한화L&C는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개발한 차량용 하이브리드타입 프런트 범퍼 빔 제작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NET 인증은 국내 최초이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인증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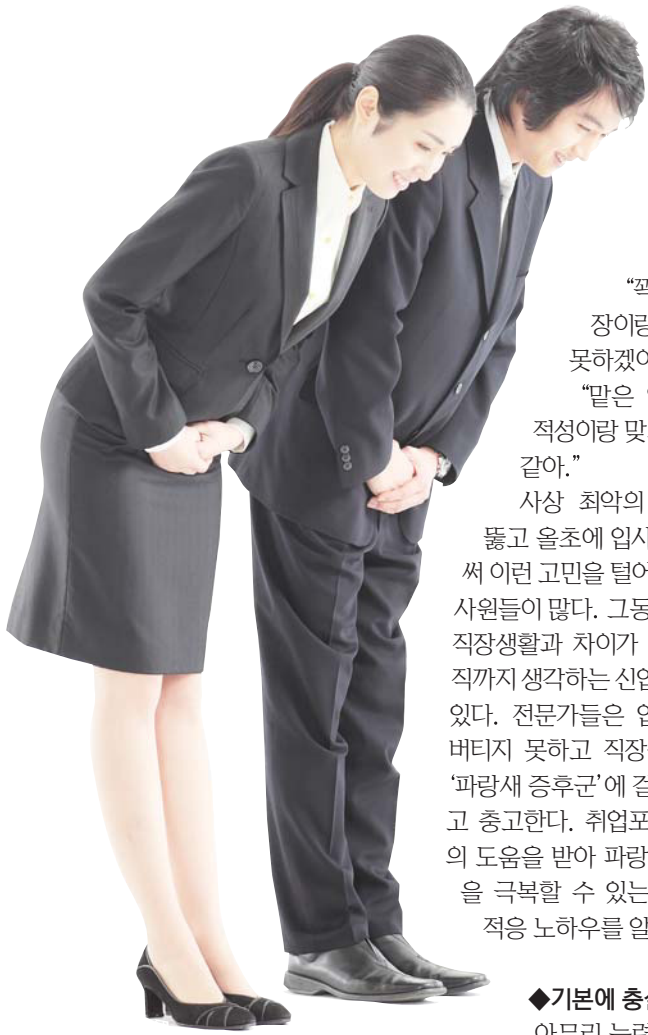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범퍼 빔은 폴리프로필렌(PP) 수지에 유리섬유를 혼합한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GMT) 안에 강철 프레임을 넣어 일체화한 제품으로 기존 스틸 범퍼 빔보다 무게를 12% 줄였고, 충돌 안전 성능은 향상시켰다.

이 제품은 올해 하반기 현대차가 중국에서 생산·판매를 앞둔 양산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3년여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GMT와 스틸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고속충돌시 빔이 끊어지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능력보다 조직에 '녹아들기'가 우선

신입사원 '파랑새 증후군' 극복 이렇게…

상사에 혼나는 상황서도 메모하면 관용
인사 잘하기, 문제발생땐 즉시보고 필수

"꽉 막힌 팀장이랑 같이 일 못하겠어."

"맡은 업무가 내 적성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뚫고 올초에 입사했지만 벌써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신입사원들이 많다. 그동안 꿈꿨던 직장생활과 차이가 크다며 이직까지 생각하는 신입사원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입사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면 '파랑새 증후군'에 걸리기 쉽다고 충고한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도움을 받아 파랑새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신입사원 적응 노하우를 알아본다.

◆기본에 충실해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신입이라도 조직에 융화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너는 다르구나'라는 반전 매력과 기본적인 예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중요하지 않거나 비중이 작은 것 같다는 불만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된다.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핵심 업무를 맡길 회사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사에게 먼저 다가가라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사를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스스로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려운 상사라고 피하지만 말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에 관한 질문은 물론 직장생활에 대한 멘토를 요청하며 개인적인 자리를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메모의 힘을 길러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메모지와 펜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특히 실수 등으로 혼나는 경우에도 꼼꼼히 메모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상사의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 것은 자칫 딴 짓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만 잘해도 '100점'

인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최고의 처세술이다. 따라서 사내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얼굴을 모르더라도 무조건 인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엘리베이터 등 갇힌 공간에서 눈길을 피한다면 버릇없는 신입사원으로 찍히기 십상이다.

◆대안을 제시하라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은 물론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때 바로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일단 '해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해봤는데 불가능한 경우는 그 이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맥이 능력이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드물다.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회식은 물론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내에 다양한 사람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단 지나치게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거나, 무조건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것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수를 줄여라

회사생활은 매 순간이 실전이다. 지시 받은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 휴식 등 시간개념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상사가 아직도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혹시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라고 묻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직장생활이 더욱 편해질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서승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가죽공예 ⑤

3대 대물림 꿈꾸는 책커버

이번 시간에는 베지터블 가죽을 활용한 책커버 만들기다.

영화 속에서 우연히 만난 고풍스러운 느낌의 책커버를 떠올리며 피천득 시인의 수필집 '인연'을 비롯해 미로 아르테에 있는 책들을 살펴본다. 관건은 책커버의 크기를 결정하는 일이다. 책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지훈 저자의 '혼창통'을 기준으로 삼는다. 책의 둘레를 측정한 후 가로,세로,두께의 각각 5㎜를 늘린 크기의 직사각형 패턴을 완성한다.

그 후 익숙한 작업을 이어간다. 가죽 위에 패턴을 놓고 재단한다. 이어 크리저로 그리프가 통과할 기준선을 만들고 망치와 그리프로 바늘이 통과할 지점을 만든다.

이날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책 둘레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실길이로 바느질을 한 거다. 적당한 실길이로 군데군데 마무리 매듭이 보이게 할 수도 있었지만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기대하며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기로 했다. 밀랍을 꼼꼼이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사여서 그런지 중간에 2번이나 실이 끊어졌다. 예상치 못한 실손실로 대여섯 구멍을 남기고 더 이상 바늘질이 어려운 실길이가 됐다. 결국 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강사는 먼저 바늘과 실을 분리한 후 바늘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어 실을 연결해 매듭까지 마무리 지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초보자와 숙련자를 가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반나절 넘게 작업을 했더니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결린다. 지하철 안을 둘러본다. 다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무언가에 열중한 모습이다. 유럽에서는 최상급 가죽으로 만든 책커버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데. 언젠가 그런 훈훈한 풍경이 스마트폰의 익숙함만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소박하게 바란다.

/ssh814@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미로 아르테에서 기자가 재단에 앞서 실제 책과 패턴을 비교해 보고 있다. /서승희 기자

블랙박스 영상도 LTE로 확인 29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모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U+ LTE 차량영상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대 인기 이유있었네"

취업률·급여 지방대 앞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유턴입학'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과 월평균 소득이 4년제 지방대 졸업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4년제 대학 졸업생 1만2225명과 전문대 졸업생 423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전문대졸의 취업률은 85.9%로 4년제 대졸(84.0%)보다 1.9%포인트 높았다. 특히 4년제 대학은 서울 주요 10개 대학(87.7%), 수도권(85.2%), 지방대(82.9%) 등으로 소재지에 따라 취업률 차이가 컸다. 반면 전문대는 수도권은 86.9%, 지방은 85.2%로 소재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갓 입사한 4년제 대졸자의 월평균 소득은 207만7000원으로 전문대졸의 202만원보다 5만7000원 높았으나 4년제 지방대졸은 196만7000원으로 전문대졸보다 낮았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2년간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적어도 초기 노동시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14학년도 전문대 입학생 중 4년제 졸업생이 전년보다 30명 늘어난 1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새로 나온 책

여행·취미

주말엔 서울여행 유철상/상상출판

전통과 젊음,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 구석구석의 매력을 7개 권역 223곳으로 나눠 설명한다. 풍부한 사진과 교통편·주차방법·입장료 등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별도의 자료 조사가 필요 없다. 이번 연휴 동안 멀리 나가기 어렵다면 이 책과 함께 서울 산책 한 바퀴 즐겨보는 건 어떨까.

에세이

모두 다 주고 싶다 김혜정/호밀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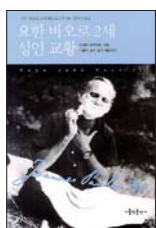
1989년 MBC강변가요제에서 '바다새'로 동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이후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며 자폐증을 앓는 큰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저자의 삶을 에세이로 펼쳐냈다. 한 엄마로, 음악에 대한 꿈을 간직한 한 여자로 살아오며 겪은 다사다난한 이야기를 진솔하고 담담하게 옮겼다.

소설

세븐킹덤의 기사 조지 R. R. 마틴/은행나무

미국에서 드라마 '왕좌의 게임'으로 만들어져 세계적인 인기를 끈 판타지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 시리즈의 프리퀄이다. 원작이 인간 세상의 정치와 음모를 잔인할 정도로 치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그 시대보다 100년 전에 펼쳐진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시리즈의 복잡한 세계관과 플롯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입문자에게 제격이다.

종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 지안 프랑코 스비데르코스키/가톨릭출판사

지난 27일 성인으로 추대된 요한 바오로 2세의 삶과 생각, 업적에 대해 다뤘다.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시대적 상황과 함께 소설처럼 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일생을 통해 우리 시대의 세대·계층 간 몰이해와 갈등을 뛰어넘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사회

김규항의 좌판 김규항/알마

'좌파'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저자가 희망버스의 시인 송경동, 강정마을의 신부 문정현 등 진보인사 스물여섯 명을 만나 대화한 기록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진보인사들의 생각과 활동들을 갈무리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진보 진영이 가진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했다.

"국민 안녕을 위한 권력은 어디에"

권력의 역사와 속성 통해 새 패러다임 제시

여기 파이가 한 판 있다. 다섯 명이 이 파이를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수학적으로 5분의 1씩 나누면 된다는 간단한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이를 똑같이 다섯 조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다. 다섯 명 중 누가 나이프를 들 것이며 어떻게 파이를 나눌 것인가? 이 과정에서 나이프가 곧 권력이라는 것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나이프만이 권력일까? 나이프를 쥔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또 다른 권력은 없을까? 그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2012년 방영된 SBS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은 당시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차명진·정봉주·전호선·금태섭·손수조 등 정치적 입장, 위치, 경력이 완전히 다른 정치인들을 한 데 모았다는 것에서 눈길을 끌었을 뿐 아니

권력이란 무엇인가

SBS '최후의 권력' 제작진/새로운현재

라 방송에서 나온 여러 공동체의 정치적 삶이 우리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원시부족사회의 빅맨,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선포한 부탄의 국왕,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산마리노 공화국 등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 책은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사실과 현상들을 전하며 권력의 원천과 속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권력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들은 권력의 역사를 통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시민 권력'을 진정한 미래 권력이자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우리 사회는 최근 심각한 위기와 갈등에 부딪쳤다. 소통이 부재하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 부재 문제에도 직면했다. 국민의 안녕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권력과 리더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 권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대의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체 게바라가 시선을 잡는 이유

산발 머리에 수세미 같은 수염, 깊게 파인 눈매, 거친 손에 담배 피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다. 그는 사실 의학 박사 출신다운 섬세함을 지녔다. 친구와 모터사이클을 타고 아메리카를 여행할 정도의 낭만도 있었다. 알레이다 마치에 대한 사랑은 로맨티스트의 대명사로 불리기 충분했다. 무엇보다 그는, 인간을 사랑한 휴머니스트였다. 겉부터 속까지 지도자이기 충분한 '체'가 시선을 잡는다. -'영혼을 사로잡는 매혹의 땅 쿠바'(김영구/가치창조) 중-

/김학철기자 kimc0604@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참가자 모집

'손 안 애서(愛書) 공모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140곳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어린이들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4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50대 이상 예비 실버 및 실버세대가 문화 복지의 재능기부자로 소외계층에게 책을 읽어주는 문화 나눔 봉사 활동이다.

진흥원은 전국 7곳의 지역 주관처와 함께 5월부터 문화봉사단 및 방문 희망기관을 모집한다.

선발된 봉사단원들은 책 읽어주기 방법, 현장실습 등 교육 훈련과정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소외시설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독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참여 희망 개인이나 방문을 희망하는 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진흥원(02-2669-0774)이나 각 지역 주관처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2014년 '손 안 애서(愛書) 사진 및 UCC 공모전'을 벌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독서인(www.read-kpip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상자에겐 문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총 40명에게 14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정영일기자

여자가 몰랐던 '남자들의 진실'

화제의 책

어쨌거나 남자는 필요하다

남인숙/위즈덤하우스

여자의 영원한 파트너지만 언제 어디서나 여자와 부딪히는 존재. 겉으로는 한없이 대범하고 여자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심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 그렇다. 바로 남자다.

어디 이 뿐이랴. 남자들은 자기네끼리 정치나 경제를 얘기할 때는 핏대를 올리면서도 여자와의 대화에서는 작아지기만 한다. 게다가 슬퍼도 화내고 무서워도 화내고 외로워도 화내는 절대 이해 불가능한 생명체다. 남자는 세상이 바뀌면서 조금은 변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여자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남자들은 저자가 제시하는 몇 가지 매뉴얼만 숙지하면 작동 원리는 물론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 이해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즉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사막과도 같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책은 이렇게 여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남자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화를 통해서 말이다.

남자로 고민하고 있는 여자들이여, 이제 그 고민을 떨쳐버리자. 어쨌거나 남자는 필요한 법이니까.

/황재용기자

지긋지긋한 허리, 목 디스크 진화된 고주파 치료로 10분이면 끝

말기 디스크 질환도 10분 정도 고주파면 OK!

평소 허리 통증이 있던 유명 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최근 양말을 신다가 오른쪽 다리가 당기면서 통증이 생겨 집 근처 척추 전문병원을 방문했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S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S양과 런닝맨에 함께 출현 중인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S씨를 진단했으며 S씨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주로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치료받았다. 치료 후 통증은 곧바로 호전됐으며 S씨는 치료 당일 퇴원했다.

또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국내 최고 보컬 가수 휘성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제대후 방송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방송활동을 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 강남초이스병원을 방문했다.

조 원장은 S씨와 마찬가지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으며 휘성은 현재 차질 없이 방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런닝맨에서 활약 중인 가수 김종국과 개리 역시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역시 상태가 호전되면서 통증이 말끔히 해소됐다.

이처럼 강남초이스병원에서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하는 치료법으로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보다 진화된 방법이다. 또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그리고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조성태(왼쪽) 강남초이스병원 원장과 가수 휘성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환자의 증상과 질환에 따라 맞춤형 치료 실시

이와 함께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지기도 한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실시한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치료를 시행한 후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특히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했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환자들은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받는다.

아울러 강남초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인근 본원 외에 교대역,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부근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노년층 야외활동 '탈장' 주의보

방치하면 합병증 불러, 회복 빠른 복강경 수술로 완치 가능

기온이 오르면서 등산이나 여행 등 노인층의 야외활동이 잦아졌다. 하지만 관절 계통의 질환과 함께 노인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탈장'이다.

◆노화로 인해 약해진 복벽이 원인

탈장은 우리 몸의 내장을 받쳐주는 근육인 복벽이 약해지면서 장이 복벽 밖으로 밀려나오는 질환이다. 복벽이 약해지는 원인은 복압의 증가, 복벽 조직의 약화 두 가지로 구분되며 주로 서혜부(사타구니)나 배꼽 부위에서 탈장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복벽 조직의 약화로 인한 탈장은 노화가 진행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더욱이 등산이나 여행 등으로 평소보다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

탈장이 발생하면 발생 부위가 혹이 난 것처럼 부풀어 오른다. 또 혹 같은 덩어리를 손으로 밀어 넣거나 누우면 다시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탈장을 방치할 경우 장폐색 및 장의 괴사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더욱이 탈장은 신체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약으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다.

즉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최근에는 인조 그물(Mesh)을 삽입하는 수술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통해 불편과 부작용을 최소하는 것이 좋다.

민상진 메디힐병원 원장은 "탈장 수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복강경 시술법은 수술 후 만성 통증의 발생 빈도가 낮고 회복이 빠르다. 또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복부 비만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대한장연구학회, '해피바울 건강콘서트'

내달 18일 환우와 가족 위한 건강강좌도

대한장연구학회(회장 양석균)가 '세계 염증성 장 질환의 날(5월 19일)'을 맞아 다음달 18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해피바울 건강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염증성 장 질환 환우들의 희로애락을 음악으로 소통하고 치유하는 참여형 건강강좌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염증성 장 질환 환우들의 응급 상황과 대처법 및 치료법 ▲염증성 장 질환 환우들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만드는 뮤직하모니 경연 ▲사연 및 노래 개사 공모전 시상 ▲환자 지원을 위한 기부 물품 현장 경매 등이다.

염증성 장 질환 환우나 가족, 일반인 등 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콘서트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장연구학회는 콘서트에 참석하기 어려운 환우 및 가족들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14개 병원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에 생기는 만성 염증으로 복통·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황재용기자

미에로걸 '이유비' 몸매 보고 노트북 받으세요

현대약품은 5월 23일까지 미에로걸 이유비의 다양한 CF 촬영현장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온라인 이벤트 '이유비, 스키니 라인에 도전하다!'를 벌인다.

TV 광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에피소드와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 속에 숨겨진 이유비의 반전 몸매를 확인 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미에로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감상하고, 미에로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른 후 페이스북으로 마음에 드는 영상을 공유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LG 엑스노트 그램 노트북(1명), 이유비 CF 의상(1명), 미에로 음료 기프티콘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된다. /정영일기자

오케이웨딩컨벤션 분양

시행사 허밍아일랜드에서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에 10월 오픈 예정인 '오케이웨딩컨벤션센터' 호수를 분양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분양으로 진행하며 1호수당 2000만원, 3000만원이 있다. 1인당 5개 호수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부국금융에서 5년간 연 12%의 임대수익을 매월 지급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청금은 100만원이다.

오케이웨딩컨벤션센터는 대지면적 2872㎡, 건축 면적 1869.8㎡ 규모로 지어진다. 총 지하 5층 지상 13층 건물로 분양 대상은 오케이웨딩컨벤션센터가 소유하는 7층부터 13층이다. 7층은 돌잔치 뷔페, 8층 피로연장, 9·10층과 11·12층은 복층웨딩홀, 13층은 피로연장이다.

현재 예식홀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의 : 1800-1013

리뉴짓 컬렉션, 체험단 이벤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방향제 브랜드 '리뉴짓 컬렉션'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소비자 체험단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향기 스타일링 법이 무엇인지 온라인 커뮤니티 '레몬테라스'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 /정혜인기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개관

'리프레싱 비즈니스' 지향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제공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가 29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공식 개관했다.

총 28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호텔은 '리프레싱 비즈니스(Refreshing Business)'를 모토로 하는 메리어트 계열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로 고객들이 투숙 기간 중 업무와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호텔은 지하철 판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울 강남까지는 16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호텔 8층은 로비, 레스토랑, 바와 미팅룸으로 구성돼 효율적인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돈 클리어리(**사진 왼쪽**)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아태지역 최고 운영책임자는 "한국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이자 문화적으로도 아시아 전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다. 이번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개관을 통해 한국에서 코트야드 브랜드의 두 번째 진출을 이루게 된 것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큰 성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폴 캐닝스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총지배인은 "경기지역의 첫 메리어트 브랜드 호텔이자 판교 지역 첫 비즈니스 호텔로 한국 IT산업의 거점인 판교를 방문하는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호텔은 개관을 기념해 브런치 뷔페 한 명 예약 시 한 명이 무료인 '1+1행사(100명 한정)'와 주말(금·토요일) 프리미엄 룸을 9만9000원(400객실 한정, 10% 세금 별도)에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밥값보다 비싼 여름 간식, 집에서 해결

홈메이드족 늘자 관련 상품 매출도 늘어

최근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시원한 여름 간식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베이커리나 카페도 일찍부터 팥빙수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이 문제다. 이런 가운데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등을 집에서 저렴하게 직접 만들어 먹는 홈메이드족이 늘면서 관련 용품 매출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마켓인 옥션에서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최근 2주 동안 빙수기와 제빙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빙수기는 한 여름인 6~7월에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구매 시기가 1개월 정도 빨라진 것이다.

또 팥빙수의 수요가 늘어남에 팥빙수·아이스크림 관련 제품의 판매율도 같은 기간 105% 늘었다. 요즘 팥빙수는 얼음과 팥·우유 정도만 들어간 전통 팥빙수가 인기다. 이 때문에 옥션에서도 팥·아이스크림·연유 등 기본 재료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엄마표 천연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제조기의 판매도 같은 기간 155%나 증가했다. 대표 상품인 '해밀턴비치 아이스크림 제조기'(**사진 맨 왼쪽**)는 원하는 재료를 차가운 냉매 볼에 넣은 뒤 전원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아이스크림이 완성된다.

얼려먹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빙수기 조리도구로 아이스크림 스틱과 아이스틀 등이 한 주간 베스트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원한 생과일주스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핸드 블랜더와 믹서기도 각각 20%, 50% 증가했다. /정영일기자 prms@

'고급 레스토랑 요리' 만들어 볼까

요리 프로그램 등으로 홈셰프 문화 확대

최근 연예인이나 셰프가 등장해 자신만의 레시피로 각종 요리를 만드는 오락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즐기는 '홈셰프'들이 늘고 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식사 준비에서 즐거운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요리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해외 식재료들의 국내 출시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대형마트에서도 손쉽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도 홈셰프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베이컨은 재료 하나로 스크럼블 에그와 함께 하는 브런치 메뉴와 파스타·피자 등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식재료다. 동서가 수입 유통하는 '오스카마이어'는 프리미엄 오리지널 베이컨으로 도축된 지 1주일 안에 제품을 생산하며 냉장 유통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우수할 뿐 아니라 제품의 맛과 향이 탁월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수입 과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블루베리는 샐러드·파르페, 빵 등 다양한 요리에서 감초 역할을 하는 재료다. 돌 코리아가 최근 출시한 '블루베리 인 라이트 시럽'은 수확 후 3일을 넘기지 않은 싱싱한 블루베리를 그 상태 그대로 가벼운 설탕 시럽에 담아 보관이 용이하며 어디서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샘표에서 출시한 폰타나수프는 정통 유럽식 레스토랑의 고품격 수프 맛을 재현한 제품으로 치즈·우유·유크림 등 엄선된 고급 재료만을 사용해 맛과 향이 풍부한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와 섞어 마시거나 칵테일·에이드·요리 재료 등으로 활용 가능한 발효 식초는 특별한 음료를 완성시키는 비법 재료다. 와인 식초 같은 경우 서양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조미료로 포도주 대신 사용되고, 사과 식초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자주 쓰인다. /정영일기자

식음료업계, '한라봉' 응용제품 봇물

국산 과일 가운데 선물용 고급 과일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한라봉이라고 답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만 생산되는 제주 특산품으로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과육, 쉽게 만나볼 수 없다는 희소성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라봉의 출하가 늘면서 국내 식·음료업계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한라봉이 과일계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커피전문점할리스커피의 '제주한라봉빙수', 파리바게뜨 '제주 한라봉 롤케익', 전통차 전문 브랜드인 카페 오가다의 '레드 한라봉차', 휴롬에서 운영하는 휴롬팜의 '한라봉 주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영일기자

위로와 휴식이 함께하는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

파머스마켓, 핸드메이드키친 등 프로그램 풍성
행사 참여 시 입욕제, 마스크 교환권 증정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면, 혹은 보다 색다른 재미를 원한다면, 추억이 배가 되는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를 주목해보자.

영국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오는 5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을 개최한다. 이 콘서트에서는 실력 있는 다섯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공연은 물론 신선하고 건강한 러쉬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체험 프로그램과 재미거리가 펼쳐진다. 러쉬는 2011년 코스메틱 브랜드 최초로 콘서트를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해를 더해갈수록 그 인기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콘서트 공연에 앞서 오후 12시부터(소진 시 마감) 싱그러움이 가득한 러쉬 팜(LUSH FARM)에서는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러쉬 파머스 마켓(LUSH FARMER'S MARKET)' '핸드메이드 키친(HANDMADE KITCHEN)' '스킨 케어 카운셀링(SKINCARE COUNSELING)' '러쉬 캠페인(LUSH CAMPAIGN)' '러쉬 팝업 스토어(LUSH POP-UP STORE)' '러쉬 스파(LUSH SPA)' 등 아이와 엄마가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러쉬 파머스 마켓은 국내 및 로컬 지역의 건강함을 가득 실은 장터로 신선함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가득하다. 장바구니를 가져오면 마켓 이용 시 선물을 증정한다.

핸드메이드 키친에서는 영국 수석 셰프와 베스트 입욕제를 직접 만들어보고 이를 가져갈 수도 있다. 러쉬 블랙 팟 용기 5개를 가져오면 우선 체험권을 증정한다.

'관심과 용기가 모이면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라는 슬로건의 러쉬 캠페인은 종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캠페인,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등이 펼쳐진다. 기브미(米) 캠페인은 쌀 1kg을 가져오면 프레쉬 마스크 교환권을 증정하는 캠페인이다.

또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는 발라드의 왕자 '성시경'을 비롯해 유럽을 사로잡은 실력파 뮤지션 '바스티앙 베이커', 한국 인디록 씬의 중심 '장기하와 얼굴들', 폭발적인 가창력의 디바 아이돌 스타 '씨스타', 대한민국 록 밴드의 위상 '자우림'까지 다섯 아티스트의 비상한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다.

러쉬 전국 49개 매장 및 온라인에서 6만원부터 7만5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좌석 등급별(스탠딩·R석·A석)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러쉬 홈페이지(lush.co.kr)와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lush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44-2357

/정혜인기자

"스포츠 장비 무료로 빌려쓰세요"

배드민턴 라켓부터 골프채까지 다양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은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달이다. 반면에 야외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최근 비용 부담 없이 야외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렌탈 프로그램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배드민턴 브랜드 요넥스코리아는 연중으로 무료 라켓 렌탈 서비스를 진행한다. 요넥스의 신상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20·30대 생활 체육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요넥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체험을 원하는 모델명과 함께 예약일을 선택하면 집으로 배송된다. 렌탈 서비스는 365일 신청 가능하며 제품 수령일로부터 4박5일 동안 제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품 반납은 배송박스의 주소로 보내면 되고 반납이 확인된 후에는 재신청도 가능하다.

골프 용품 브랜드 캘러웨이는 다음달 31일까지 아이언을 무료로 렌탈해 준다. 서비스 해당 제품 중 하나인 신형 APEX는 연철단조 아이언으로 엑스 핫(X HOT) 페어웨이 우드의 카펜터 455 스틸을 페이스에 적용해 볼 스피드가 빠른 게 특징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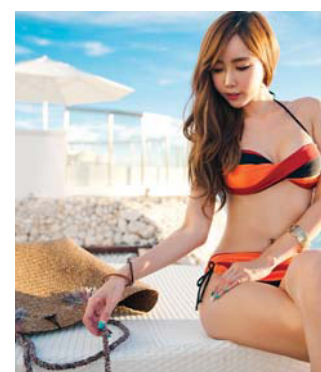
한국캘러웨이골프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아이언의 스펙과 배송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렌탈 기간은 최대 2주이며 제품의 배송 및 회수 비용은 회사 측이 전액 부담한다.

따뜻해진 봄 날씨를 즐기기 위해 자전거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는 추세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3번 출구 앞을 포함한 2곳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전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분증을 제시한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의 장기 대여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와야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2030 패션 아이템 구매 제각각

20대 '비키니', 30대 '커플룩·캠핑용품'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일 석가탄신일까지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다가왔다. 연휴를 기회삼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20대와 30대의 패션 아이템 구매 패턴을 보면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짐작할 수 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4월 한 달간 연령대별 여행 패션 아이템 10종의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비치웨어와 선글라스를, 30대는 커플룩과 캠핑용품을 가장 많이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가 선호한 비치웨어와 선글라스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39% 증가했다. 특히 비키니 수영복은 본격적인 여름시즌이 아닌데도 전년 동기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30대는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회사는 커플룩 제품과 패밀리룩은 전년 동기 대비 6배 많은 판매를 기록했고 캠핑용품 판매량도 37%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E metro entertainment

"R&B의 요정은 잊어라"

'싱크로퓨전'으로 돌아온 박정현

올해로 데뷔 16년차를 맞은 R&B의 요정 박정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얇고 맑은 목소리로 요정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그는 신보 '싱크로퓨전'의 타이틀곡 '더블 키스'에서 발라드 퀸의 모습을 감추고 끝없는 변신을 예고했다.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로서 기량을 한껏 뽐냈다면 이제는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콜라보 앨범 새로운 도전

박정현은 새 미니앨범 '싱크로퓨전'에서 다른 가수와 함께 부르는 형식의 협업은 아니지만 음악 색깔이 전혀 다른 작곡가와 공동 작업을 선택했다. 바로 윤종신이 이끄는 프로듀싱팀 '팀89'의 포스티노와의 작업이다.

포스티노는 영국 유학 차 런던에 머물던 시절 발표했던 싱글 '부쉬힐 재즈 하우스'로 2009년 영국 최대 댄스뮤직 스토어인 '주노 다운로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포스티노는 '더블 키스'의 작곡과 편곡뿐 아니라 베이스와 키보드, 토크 박스 및 드럼 프로그래밍, 마스터링에까지 참여했다.

그는 "빠른 템포의 노래를 어떻게 하면 신나게 부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신나는 노래는 록이나 굵은 목소리를 떠올리는데 내 목소리가 얇은 편이라 강렬한 창법을 참고해서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앨범에는 마이클 잭슨의 앨범 '스릴러'에 참여했던 미국 최정상급 기타리스트 폴 잭슨 주니어, 그래미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엔지니어 마우리시오 게레로 등 월드 클래스급 세션들이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는 "다른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꾸준히 생각해 왔다. 싱크로퓨전 안에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맞춰서 서로의 음악적 색깔을 융합하고 싶었다"며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신기하게도 내 색깔과 다른 아티스트의 만남은 새로웠다. 그래서 이 같은 신기함을 깊이 살펴 들어가고 싶어서 '싱크로퓨전' 시리즈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 이유있는 요정의 변신

그 동안 앨범 타이틀 곡을 발라드로 선택했던 박정현은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가수였다. 특히 타이틀 곡이 강한 인상을 심어 'R&B 요정'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지만 그의 앨범 수록곡을 보면 선입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 선보인 정규 8집 '패럴랙스'는 1980·90년대의 팝 발라드와 모던 록 장르의 음악을 담고 있다.

"매번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면서 항상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때문에 정규앨범에는 6곡 정도 신나는 노래가 담겨있죠. 하지만 타이틀 곡을 빠른 템포로 선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대중이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콜라보 공연 '그해 겨울'에서 저의 다른 모습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해 겨울'은 박정현이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연말공연 타이틀이다. 첫해에는 성시경, 지난해에는 김범수와 공연을 했고 올해의 파트너 YB까지 이어지면서 매년 새로운 남자 가수와 호흡을 맞췄다. 성시경과 발라드의 진수를, 김범수와 시각과 청각을 즐겁게하는 공연을, YB와는 로커 본능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세 개의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싶다. 다음 콜라보 작업 대상을 정하지 않았지만 힙합에 도전해 보고 싶다"며 "가장 생소한 장르가 랩인데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 뮤지컬 공연 방식 탈피

박정현은 말보다 음악으로 팬들과 대화하는 가수로 유명하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그녀만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마치 관객과의 통로로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공연을 시작한 계기를 들으면 웃음부터 나온다. 바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며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말없이 뮤지컬 느낌의 공연을 고수했는데 올해 공연부터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말이 서툴러서 멘트를 줄인 건 사실이에요.(웃음) 아직 말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자심감은 없지만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대중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팬 들과 대화하면서 차분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진출보다 국내에서 자신의 음악을 완성하고 싶다는 그는 "데뷔 16년 자체가 놀랍고 고맙다. 몸이 잘버텨야 할텐데"라며 "단순히 가수로서 성공하겠다는 욕심을 갖기보다 라이브 무대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콘서트를 꾸준히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미니앨범 '싱크로퓨전'에는 30일 선공개되는 '그 다음 해' 이외에도 타이틀곡 '더블키스'와 수록곡 '드림 스피어'가 담겨있다. 박정현은 다음달 9~11일과 16~18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단독 공연 '싱크로퓨전'을 개최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디자인/최송이

프로듀싱 팀 '팀89' 포스티노와 작업
두 번째 콜라보 도전 장르는 '힙합'
공연장서 팬과 많은 대화 나누고 싶어 ”

비핸즈카드 제공 (제품번호: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 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한예슬 중국행 프로젝트

배우 한예슬(사진)이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낸다.

한예슬의 소속사 에스비 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야왕'의 제작사인 베르디 미디어, 제니스미디어콘텐츠 등과 손잡고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제니스미디어콘텐츠는 "최근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투자기업인 제릭스 컴퍼니와 손을 잡고 상하이 지사를 설립했다"며 "영화 '아이언맨3'를 월트디즈니사와 공동 제작한 중국 엔터테인먼트 그룹 DMG 엔터테인먼트 및 영화 배급사 겸 제작사 천마오락과 제휴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니스미디어콘텐츠는 한예슬 등 에스비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다수 배우들의 중국 진출을 도우며 여성 7인조와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을 올해 안으로 중국에 데뷔시켜 K-팝의 중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김명민의 변신은 '무죄'

'개과천선'서 냉혈한 변호사 도전 의사·지휘자 이어 또 전문직 연기

배우 김명민(왼쪽)이 냉혈한 변호사로 변신한다.

MBC 새 수목극 '개과천선'(30일 첫 방송)에서 김명민은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였지만 우연한 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호사 김석주를 연기한다.

29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석주 캐릭터에 대해 "기억을 잃기 전과 후가 아주 다르다"며 "이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김명민은 '하얀거탑'에서 천재외과의 장준혁, '베토벤 바이러스'의 지휘자 강마에 등 전문적인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변호사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드라마와 실제의 간극을 좁히는 게 내 일이었다"며 "극중 설정을 재밌게 살리면서도 실제 변호사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촬영장에 변호사들이 참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책, 법정 드라마, 미국 드라마 등을 보기도 하고 지인들 중 변호사를 만나서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개과천선'에서 김명민과 함께 카리스마 연기 대결을 펼치는 김상중은 김석주를 키워낸 대형 로펌의 대표 차영우 역을 맡았다.

김상중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라며 "어느 한 쪽이 이기기 위해서 다른 한 쪽을 반드시 지게 하는 불합리한 세상을 그리지만 그 안에서 정의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와) 김명민 중 누가 더 '꿀성대'인지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져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한편 이날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연출진과 배우들은 모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두 래퍼 긴 침묵 깨고 컴백

실력파 래퍼들이 나란히 컴백한다.

마리오(오른쪽 사진)는 29일 2년 만의 신곡 '대미지'를 발표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냈지만 후회로 울부짖는 남자의 상처를 노래한다. 걸그룹 스피카의 김보아가 피처링에 참여해 이별 후 느끼는 여자의 상처를 표현했다.

이 곡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창락 작곡가의 곡으로 오랜 기간 음악적인 상의를 거쳐 탄생됐다. 절규하는 듯한 랩핑과 멜로디로 진한 감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래퍼 아웃사이더(왼쪽)도 10개월 만에 컴백한다.

아웃사이더는 다음달 2일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손'을 발표한다. 지난해 6월 '슬피 우는 새' '바이 유'를 발표한 이후 약 10개월 만의 신곡이다.

신곡 '손'은 작곡가 문규혁과 이건호, 아웃사이더 사단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 또 이별과 상실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수도 있는 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양성운기자 ysw@

이종석·박해진도 '몰라볼 남자'로

'닥터 이방인'서 전작 넘는 파격 연기

배우 이종석(오른쪽)과 박해진(왼쪽)이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이종석은 다음달 5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서 소년에서 남자로 변신을 시도한다. 그는 29일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보통 내 나이 정도에 의사 역은 인턴이다. 박훈은 흉부외과 집도의다. 이 부분에서 욕심이 났다"고 역할을 소개했다.

이종석은 심장 수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의사 박철(김상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돼 북으로 가게 된 천재 의사 박훈 역을 맡았다.

극 초반 북한을 배경으로 한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 북한 사투리를 배우고 체중감량까지 하는 노력을 했다.

그는 "원래 마른 편이었는데 뼈 라인만 보이게 5kg 정도 살을 더 뺐다. 남한으로 넘어와서는 살을 다시 찌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사투리의 경우 영화 '코리아'에 출연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코리아' 때의 사투리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과 '닥터 이방인'에 함께 출연하는 박해진은 전작인 '별에서 온 그대' 속 순애보적인 인물 이휘경에서 차가운 완벽주의자 한재준으로 열연한다.

한재준은 북에서 남으로 건너온 이방인 박훈과 대립을 이루는 국내 최고 수준의 흉부외과 신임 과장이다.

박해진은 "'닥터 이방인'은 메디컬 첩보 멜로극이다. 이 중 병원에서 강소라와 멜로를 주로 담당할 것이다"며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냉철한 모습을 보일 계획이다. 이종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역 아닌 악역을 맡게 됐다"고 한재준을 설명했다.

이어 '별그대'와 이휘경 캐릭터의 성공에 대해 "휘경의 모습을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박해진이라서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외모부터 말투·행동 하나까지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시청률 부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종석은 지난해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박해진은 올해 SBS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인기를 누리며 흥행 보증 배우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석은 "진혁 PD님이 '작품이 잘 안 돼도 너는 손해 볼 거 없다. 연기 변신이니까'라고 하셨다. 지금까지 소년이었다면 이번엔 남자이고 싶다. 잘하고 있는지는 방송 후 반응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해진은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며 "매 작품마다 시청률이 잘 나올 것이란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연출이 큰 힘이 된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종석과 박해진의 연기 변신이 관전 포인트인 '닥터 이방인'은 남에서 태어나 북에서 자란 천재 의사 박훈과 한국 최고의 엘리트 의사 한재준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메디컬 첩보 멜로극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올해 칸도 K-무비스타 뜰까

전도연 심사위원… 배두나·신예감독 레드카펫

14일 프랑스에서 개막할 제67회 칸국제영화제에 한국 스타와 감독이 여러명 참석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스타는 전도연(큰 사진). 경쟁 부문의 심사위원 자격으로 칸을 찾는다. 한국 배우가 이 영화제의 심사위원에 선정된 것은 처음으로 전도연은 개막일 하루 전인 13일 프랑스로 출국한다.

그는 폐막일인 25일까지 칸에 머물며 경쟁 부문에 오른 19편의 작품을 심사할 예정이다. 레드카펫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영화제 측으로부터 아직 세부적인 일정을 전달받지 않아 어떤 행사에 참석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영화제 공식 부문인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된 '도희야'의 주연 배우인 배두나(왼쪽 사진)와 김새론(오른쪽)도 칸을 방문한다. 영화 홍보사 앤드크레딧 관계자는 29일 참석 사실을 전하며 "현재 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배두나는 2006년 '괴물', 2009년 '공기인형'에 이어 세 번째 칸을 방문하게 됐다. 국내 여배우 가운데 주연영화 3편으로 칸에 진출한 건 배두나가 유일하다. 2009년 '여행자'로 한국 배우 중 최연소로 칸에 진출한 김새론도 두 번째 칸을 찾게 됐다.

그러나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표적'의 주연 배우인 류승룡·이진욱·유준상의 칸 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영화제 측에서 세부 일정을 받고 나서 이번 주 안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는 신예 감독들의 참석도 눈에 띈다. 임권택·김기덕·홍상수 등 기대를 모았던 한국 거장 감독의 신작이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한 대신 젊은 감독들이 다른 부문에서 뜻깊은 성과를 냈다.

'끝까지 간다'의 김성훈 감독이 '감독 주간'에 초청돼 칸을 찾는다. 이선균·조진웅 등 출연배우들은 국내에 머물며 영화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희야'의 정주리 감독 역시 배우들과 함께 참석을 확정했다.

'표적'의 창감독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경쟁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에 진출한 '숨'을 연출한 권현주 감독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독립영화 '한공주', '지슬'도 넘었다

15만 관객 돌파… 에딘버러에도 초청

영화 '한공주'(사진)가 한국 독립영화 극영화 부문에서 최단 기간 최다 관객 동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29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한공주'는 개봉 12일째인 28일까지 15만1366명의 관객을 모았다. 기존 한국 독립영화 극영화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의 최종 관객 수 14만4490명을 개봉 12일 만에 넘어섰다.

배급사 무비꼴라쥬 측은 "신작 개봉으로 스크린 수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관객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기 흥행을 기대했다.

해외 영화제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세계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9관왕을 달성한 '한공주'는 6월 18~29일 열릴 제68회 영국 에딘버러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도 공식 초청됐다.

에딘버러국제영화제는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제 중 하나로 작품성 있는 독립영화를 소개한다. 지금까지 한국영화로는 '베를린'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 '파수꾼' '똥파리' '괴물' '올드보이' 등이 초청됐다.

영화제의 예술 감독인 크리스 후지와라는 "최근 가장 훌륭한 한국영화 중 하나다. 압도적인 감정적 힘을 갖고 있으며 재능 있는 신인감독의 데뷔작"이라며 공식 초청 이유를 밝혔다. /탁진현기자

전지현 1억 조용한 기부

톱스타 전지현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왕지현이라는 이름으로 기탁된 1억원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던 중 전지현이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 스타들의 기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지현은 자신의 본명으로 남몰래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현의 측근은 "남은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은 마음이지만 희생자 가족과 아픔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고 대한적십자사에 전했다.

전지현은 2012년 결혼식 축의금을 기부한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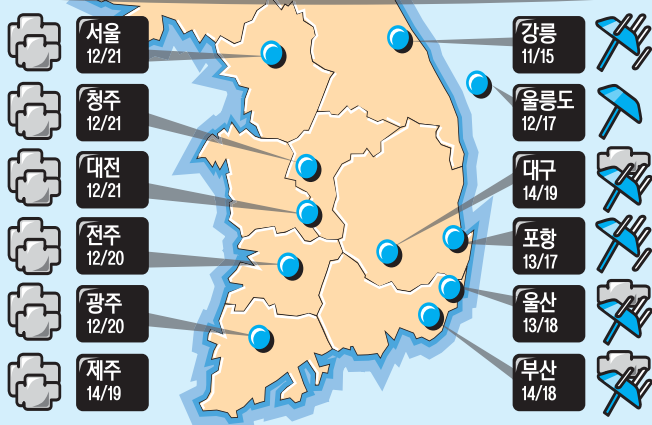
송창의·조정석 뮤지컬 대결

배우 조정석·송창의·오종혁이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에 출연한다.

'브러드 브라더스'는 연극 '리타 길들이기' '셜리 발렌타인'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영국 극작가 윌리 러셀의 대표작으로 쌍둥이 형제 미키와 에디의 엇갈린 운명을 비극적이지만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송창의와 조정석은 이번 무대에서 비극적인 운명의 쌍둥이 형제 중 자유분방하고 순수한 미키 역을 맡았다.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20여 년의 세월을 특수분장 없이 오직 연기력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미키의 쌍둥이 동생 에디 역은 뮤지컬 배우 장승조와 클릭비 출신 배우 오종혁이 맡았다.

쇼노트와 CJ E&M이 기획·제작한 이 뮤지컬은 6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탁진현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3
				6			5	9
					3	6	4	7
8		1	3			5		2
			2		7			
3		5			1	7		4
9	8	3	6					
4	5			3				
2		6	4					

				7		6		
3			4					8
4	8	7		9	2			
	7	4				2	5	
	9			8			3	
	5	3				8	9	
			1	5		4	2	3
1					7			9
		5		3				

스도쿠 정답

7	6	4	5	9	2	8	1	3
1	3	8	7	6	4	2	5	9
5	9	2	8	1	3	6	4	7
8	7	1	3	4	6	5	9	2
6	4	9	2	5	7	1	3	8
3	2	5	9	8	1	7	6	4
9	8	3	6	2	5	4	7	1
4	5	7	1	3	8	9	2	6
2	1	6	4	7	9	3	8	5

5	1	9	3	7	8	6	4	2
3	2	6	4	1	5	9	7	8
4	8	7	6	9	2	3	1	5
8	7	4	9	6	3	2	5	1
2	9	1	5	8	4	7	3	6
6	5	3	7	2	1	8	9	4
7	6	8	1	5	9	4	2	3
1	3	2	8	4	7	5	6	9
9	4	5	2	3	6	1	8	7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평범한 부모님이 가끔은 원망
자신이 할수있는 것에 집중을

Q Hey 캣우먼!
저는 외고에 다니는 여고생이에요. 학원가 아이는 아니고 그저 학교에 충실한 학생이었죠. 영어로 말 한 마디 제대로 못 하고 단어와 문법만 열심히 공부한 저로서는 외고 커리큘럼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아이들과 실력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많았어요. 학교 행사로 교수인 친구 어머니가 강연을 하는 게 참 멋지다 싶었는데 저는 은연 중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젊음의 초상

A Hey 젊음의 초상!
젊은 나이에 세상의 현실 두 가지를 이미 파악하기 시작했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와 '세상은 불공평해'.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한들 외국생활을 거친 아이들보다 영어를 잘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평범한 부모님이 갑자기 교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린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위로는 한없이 더 위가 있고 아래로는 한없이 아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아보이는 상대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환멸하면 괴롭긴 해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실망하며 자신의 한계를 본다는 건 현실을 직시하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의 진짜 '행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로서는 안 되는 걸, 비교해도 의미가 없는 걸 무작정 바라거나 조급히 채우려 들면 얻을 건 압박감과 자학 밖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간하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젊을 수록 주변 또래들과 비교 안 하기 힘들테고 '난 이것 밖에 못하니까' '나에겐 뭐가 있지?'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와 달라보이는 친구들도 속내도 당신과 똑같을 겁니다. /캣우먼

김상희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물려받은 야산 활용 방안은 착실히 일구면 성공 가능해

배두산산 남자 71년 3월 7일 음력 새벽 3시

Q 저는 그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일 저일 전전하다가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지내거나 도시에서 지내는 것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선친께서 남겨주시고 가신 야산 10만평이 저의 전 재산인데 잡목이 대부분인 산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귀하의 명조(사주구조)에서 해수(亥水)중에 갑목이 있고 묘중에 을목으로서 목국(木局:나무로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강하게 이루고 있으니 임산업이 좋습니다. '흰 토끼의 상'으로 의혹이 심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아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하나 재물을 착실히 모으는 편입니다. 자칫 욕심을 품으면 침착성을 잃어 중단수가 있으니 일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지불합하여 풍파가 있을 수 있으나 일주(생일)에 현침살(懸針殺)은 활인하고 적덕(積德)해야 자신과 육친의 신상에 닥칠 흉액과 재난을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방에 발복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며 착실히 일구어 나가야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중단한 역학공부 해도 되나요 재물상승 운 있어 도전하도록

복바치 남자 66년 4월 29일 18시

Q 역학공부를 진작부터 했으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다가 시간 나면 또 하고, 다시 중단하고 그러기를 몇 번 씩 하면서 역학공부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학 공부를 부실하게 해서 제 사주를 제가 모릅니다.

A 정신적으로 어렵고 생활상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활인업(活人業)으로서 역술인이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업입니다. 다만 역술인은 짧은 앎으로서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아야 자손에게 복이 됩니다. 귀하는 무신(戊申)생일주가 시상(생시)에 신금, 일지의 신금 중에 경금(庚金)과 임수(壬水)가 있고 월지(생월)진토(辰土)에 계수(癸水)가 있어 금수(金水)가 왕하니 역술인으로서 구변이 좋고 재물복 또한 좋습니다. 무엇을 하건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인데 다행히 사주에도 편재(큰 재물)가 상승하는 운이므로 생각 외의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30일 (음 4월 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명심~. **60년생** 친구의 돌직구가 약이 된다. **72년생** 안심하기 이르니 미봉책에 만족 말라. **84년생** 직장일로 고민이 생긴다.

4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한다. **61년생**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있어 든든~. **73년생** 겉으론 밑지나 속으론 남는다. **85년생** 화가 나도 상대가 상처받을 말은 금물~.

50년생 변화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62년생** 현실을 받아들여야 편안하다. **74년생** 남을 돕다가 엉뚱한 피해 조심할 것. **86년생** 귀인을 만나 꿈과 희망을 키운다.

51년생 뭇닌 목수가 연장 탓 한다. **63년생** 배우자와 소통에 힘써라. **75년생** 모임에 가면 생각도 못한 귀인과 마주앉는다. **87년생**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니 신중할 것.

52년생 부당한 이익은 취하지 말라. **64년생** 고양이는 생선을 포기 않는다. **76년생** 주도할 일의 큰 그림은 직접 그려라. **88년생** 상사의 칭찬에 일이 즐겁다.

53년생 변화보단 현상유지가 좋다. **65년생** 악재는 피하는 게 상책~. **77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리더십을 발휘하여 극복한다. **89년생** 데이트는 제안은 쿨하게 받아들여라.

42년생 내 생각을 자녀에 강요 말라. **54년생** 경쟁자 받아들이는 게 남는 장사다. **66년생**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은 바꿔라. **78년생** 통하는 벗과 한잔은 언제나 즐겁다.

43년생 좋은 일 뒤에 어려움 따른다. **55년생** 꺼림칙한 제안은 거부할 것. **67년생** 투자는 흉하니 피하는 게 이롭다. **79년생** 시련이 있어도 하던 일 멈추지 말라.

44년생 할 말이 많아도 아껴라. **56년생** 사고의 틀을 한번 바꿔보라. **68년생** 꼼수 잘 못 부리면 찬밥신세 된다. **80년생** 짓궂은 연인 때문에 유쾌한 하루~.

45년생 배우자와 갈등은 해소된다. **57년생** 한가한 가운데 바쁜 일도 생긴다. **69년생** 지름길은 없으니 딴 생각은 말라. **81년생** 학수고대한 일은 이루어진다.

46년생 노골적 감정표현 삼가라. **58년생** 몸은 편안하나 마음은 가시방석이다. **70년생** 착오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 **82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즐겁다.

47년생 외출하면 웃을 일이 생긴다. **59년생** 부정한 돈은 돌보듯 할 것. **71년생** 어차피 할 일은 시일 끌면 손해다. **83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음 명심~.

박인비 /AP연합

노승열 /AP연합

2주 연속 동반우승 노린다

노승열 취리히 클래식 이어 웰스 파고 출전 박인비, 리디아 고 바통 받아 트로피 도전

코리안 남녀골퍼들이 미국 프로골프에서 또 한번 동반 우승에 도전한다.

노승열(23·나이키골프)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퀘일할로 클럽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웰스 파고 챔피언십(총상금 690만 달러)에 출전한다.

28일 끝난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생애 처음으로 미국 무대 우승을 차지한 노승열은 상승세를 몰아 개인 통산 2승째를 노린다. 그는 취리히 클래식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우선 다음 주 웰스 파고 챔피언십과 그 다음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참가해 2승에 도전하겠다"고 의욕을 내보였다.

그러나 이 대회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직전 주에 열리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허리 수술 후유증으로 불참하나 2010년 우승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비롯해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필 미켈슨(미국), 어니 엘스(남아공)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한국(계) 선수로는 노승열 외에 최경주(44·SK텔레콤)와 양용은(42·KB금융그룹)을 비롯해 배상문(28·캘러웨이), 이동환(27·CJ오쇼핑), 위창수(42·테일러메이드), 케빈 나(31·타이틀리스트), 대니 리(24), 리처드 리(27), 제임스 한(32)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달리는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같은날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라스 콜리나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노스 텍사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슛아웃에 출전해 올 시즌 첫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서 박인비는 마지막 날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에게 역전 우승을 거두며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그는 당시 이 대회에서 이미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랭킹과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위를 고수했다. 여자골프계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아직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우승이 없는 박인비로서는 이번 대회가 물꼬를 틀 절호의 기회다.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최나연(27·SK텔레콤), 김인경(26·하나금융그룹), 박세리(37·KDB금융그룹) 등 '태극낭자'들도 총출동해 올해 첫 승 사냥에 나선다.

한편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에서 프로 전향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이번 대회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류현진 방어율 하루 만에 하락

비자책 1점 인정… 3.23→3.00

시즌 2패째를 당한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의 평균자책점이 하루 만에 수정됐다.

29일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28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의 자책점을 6점에서 5점으로, 평균자책점을 3.23에서 3.00으로 낮춰 다시 게시했다. 이날 경기 중 5회에 내준 1점이 비자책점으로 수정됐다.

류현진은 5회 첫 타자 찰리 블랙먼에게 2루타를 내준 뒤 브랜던 반스의 보내기번트 때 자신의 수비 실책으로 무사 1·3루를 허용했다. 이후 카를로스 곤살레스 타석에서 도루하다가 견제에 걸린 1루 주자 반스를 아웃시킬 때 3루 주자 블랙먼이 홈에 들어왔다.

투수가 투구한 후 실책을 저질러 실점했을 경우 이 점수는 다른 야수들이 실책을 범했을 때와 똑같이 투수 자책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써 류현진의 이번 시즌 7번째 선발 등판까지의 성적은 3승 2패, 39이닝 13자책점으로 평균자책점 3.00이 됐다.

/유순호기자 suno@

박지성의 PSV 9년 만의 내한

내달 수원·경남과 경기

박지성(32)이 소속된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에인트호번이 9년 만에 국내에서 경기를 치른다.

PSV는 다음달 22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블루윙즈, 24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친선경기를 개최한다.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을 찾는 PSV는 최정예 멤버로 팀을 구성해 K리그 프로 축구 선수들과의 불꽃 튀는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이번 PSV의 코리아 투어에는 2002년 월드컵의 영웅 박지성과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함께 방문을 예고해 주목 받고 있다. 두 사람이 PSV 소속으로 함께 한국을 찾는 것은 2003년 제1회 피스컵 이후 11년 만이다. 박지성은 각 게임당 45분 이상 출전할 예정이며, 히딩크 감독은 기술 고문 자격으로 참가한다.

/유순호기자

리디아 고 세계랭킹 2위

프로데뷔 후 첫 승을 신고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가 세계랭킹 2위에 올랐다. 1위는 박인비(26·KB금융그룹)의 몫이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윙잉스커츠 클래식에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1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른 리디아 고는 29일 발표된 세계여자골프랭킹에서 9.42점을 받아 지난주 4위에서 2계단 상승했다.

박인비가 55주 연속 세계랭킹 1위(10.12점)를 지켰고, 루이스는 3위(9.31점)에 자리했다. 박인비를 위협했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은 최근 부상으로 인한 결장 등이 겹쳐 4위(8.91점)로 2계단 떨어졌다. 베테랑 카리 웨브(호주)는 5위(7.24점)를 유지했다.

/양성운기자

'빅보이' 이대호 3호 홈런

'빅보이' 이대호(31·소프트뱅크)가 시즌 3호 아치로 앞선 3경기 무안타 침묵을 깼다.

이대호는 29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오릭스 버펄로스와 경기에서 4번타자·1루수로 선발출전해 1-2로 뒤진 7회초 동점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는 상대 오른손 선발 니시 유키의 시속 137㎞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담을 넘겼다. 23일 니혼햄 파이터스와 경기에서 7회 홈런을 쳐낸 뒤 6일 만에 그린 아치다.

이어 이대호는 3-5로 뒤진 9회초 2사 1루의 마지막 타석에서는 상대 세 번째 투수 히라노 요시히사의 3구째 시속 143㎞짜리 직구를 때려 좌전 안타로 연결했다. 15일 라쿠텐전 이후 14일 만에 터진 시즌 7번째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두 개 이상)다.

소프트뱅크는 2-5로 들어선 9회초 마지막 기회에서 1점을 내는 데 그쳐 3-5로 졌다. 퍼시픽리그 1위 오릭스(18승8패)와 2위 소프트뱅크(15승1무9패)의 승차는 2경기로 벌어졌다.

/양성운기자

프로야구 전적 29일

■ 잠실

팀				계
넥센	001	220	000	5
두산	010	100	000	2

△승리투수 = 조상우(3승) △세이브투수 = 손승락(2패 9세이브) △패전투수 = 볼스테드(1승 2패)

■ 광주

팀				계
SK	061	0110	000	18
KIA	010	200	011	5

△승리투수= 김광현(3승3패) △패전투수= 한승혁(1승1패) △홈런= 신현철 1호(3회1점·SK) 안치홍 3호(4회2점·KIA)

■ 마산

팀				계
LG	020	000	000	2
NC	102	000	00X	3

△승리투수 = 이재학(3승 1패) △세이브투수 = 김진성(1승 2패 6세이브) △패전투수 = 임정우(1패)

락포트, 보트 슈즈 출시와 함께 가정의 달 세일 진행

신제품 4종, 아디다스 운동화 기술 적용 안정된 착화감이 특징
18일까지 락포트 스페셜 세일 진행…락포트 텀블러도 증정

썸머 투어 2 아이 슬립 온 / 보니 태슬 보트 슈즈 / 오프 더 코스트 2 아이 슈즈 / 트루워크제로 Ⅱ 메시 메리제인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야외활동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가벼워진 옷차림 만큼이나 신발도 변화를 따르고 있다.

최근 발의 편안함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신발에 적용된 기능적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

슈즈 브랜드 락포트(ROCKPORT)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썸머 투어 2 아이 슬립 온'은 신발 앞 부분에 컬러풀한 밴드가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맨발에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항균성 안감을 사용해 편하게 신을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발 뒤꿈치 부분에는 아디프린(adiPRENE) 기술을 적용해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워킹을 제공한다.

회사는 이 신발을 수트나 치노 팬츠와 매치하면 경쾌한 데일리 비즈니스 룩을 연출하기 좋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프 더 코스트 2 아이' 슈즈는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신발은 아디프린 & 아디프린 플러스(adiPRENE & adiPRENE+)기술을 적용했고 발 뒤꿈치에 열가소성폴리우레탄(TPU) 을 넣어 안정감과 지지력을 높였다. 세련된 카멜 컬러로 데님 팬츠나 수트에 포인트 슈즈로 활용하기에 좋다.

두가지 색상의 믹스로 경쾌한 느낌을 더한 '보니 태슬 보트'신발은 앙증맞은 태슬 장식이 돋보이는 신발이다.

아울러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 손질이 용이하고 부드러운 착화감을 제공한다.

이 신발 역시 아디프린 & 아디프린 플러스(adiPRENE & adiPRENE+)기술을 적용했다. 고무 소재의 아웃솔을 사용해 발 뒤꿈치의 충격 흡수 및 마모 저항을 높여 편안한 착화감이 특징이다.

심플한 숏 팬츠나 데님 진에 매치해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 미니멀한 원피스와 매치하면 발랄한 느낌의 데이트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메시 소재의 '트루워크제로 Ⅱ 메시 메리제인'은 산뜻한 컬러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컬러를 한층 더 부드럽게 표현했으며 특히 뒷꿈치로 전해지는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발 앞부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증대시켰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풋베드와 대조되는 컬러를 사용해 한층 경쾌한 느낌을 살린 이 신발은 깔끔한 화이트 원피스와 함께 매치해 컬러 포인트를 주기에 좋은 신발이다.

한편 락포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락포트 스페셜 세일(ROCKPORT Special Sale)'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18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준비했으며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락포트 텀블러를 증정한다.

더불어 락포트를 사랑하는 많은 마니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클럽 락포트 회원 및 신규 회원들에게는 20%할인된 가격에 추가 10% 할인 혜택을 더 제공한다.

락포트 관계자는 "스페셜 세일 이벤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락포트의 제품들은 산뜻한 디자인으로 경쾌한 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받는 이에게 배려 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프리미엄 매트리스' 출시 경쟁

가구업계, 깊은 수면 원하는 소비자 욕구 반영

불규칙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질 높은 수면은 최대의 관심사다.

최근 현대인들의 부족한 수면을 채워줄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구업계에서 프리미엄 매트리스 출시 경쟁이 뜨겁다.

내구성이나 품질은 기본, 신소재를 사용해 통기성을 높이는가 하면 체압이 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특수 스프링을 사용하는 등 기능성을 높여 눈길을 끈다.

체리쉬는 입체 신소재 원단인 3D 미스트랄을 적용한 '브리더블(Breathable) 매트리스'를 선보였다. 3D 미스트랄은 3㎝ 두께의 층을 수많은 수직 와이어들로 채워 내부에 80% 이상의 공기를 머금은 통기성이 탁월한 신소재 원단이다. 공기의 순환이 잘 이뤄져 엎드린 수면자세에서도 호흡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땀과 습기에 의한 진드기·박테리아·곰팡이의 번식을 막아준다.

현대리바트는 최근 매트리스 '엔슬립'을 선보였다. 세계적인 매트리스기업 스프링에어와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은, 높낮이가 다른 2종의 포켓 스프링을 몸의 곡선에 따라 설치한 '멀티레벨 슬립센스 7존 스프링 시스템'을 도입해 체압 분산 효과가 우수하다. 또 메모리 폼에 쿨젤이 내장된 신소재 '하이드로텍스'를 적용해 쾌적한 수면 온도를 유지해 준다.

까사미아는 얼마 전 자체 매트리스 브랜드 '드림'을 통해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했다. '멀티플렉스 매트리스'는 현재까지 출시된 드림 매트리스 중 최고 사양이다. 친환경 천연라텍스와 뛰어난 통기성과 탄성의 천연 섬유 코이어, 독립 스프링이 모두 적용된 3개 층위의 내부구조가 특징이다.

해외 브랜드도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씰리코리아는 최근 메모리폼과 스프링이 하나의 매트리스에 결합된 '씰리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를 선보였다. 우수한 쿨링 기능을 자랑하는 스마텍스 기술이 적용된 에버플렉스 원단으로 이루어져 수면 시 체온이 매트리스로 전달되는 것을 분산시키고 땀을 배출시켜 준다. /정혜인기자

"제품 사면 착한 일 대신해 드려요"

유통업계 '제품 판매 연계 기부 사업' 활발

기업의 이념을 고려해 브랜드를 선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가치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도 좋지만 구매할 때 자신이 내는 돈이 조금이라도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전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도 확산되고 있다.

하이시에라는 지난 2월부터 '원포원(one for one)'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이 캠페인은 백팩이 1개 팔릴 때마다 국내, 해외 불우아동들에게 가방 1개를 기부한다. 지난 3월에는 하이파이브를 한 수만큼 불우아동에게 하이시에라 가방이 기부되는 '하이파이브 포 하이시에라'를 진행해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하이시에라 가방 10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3월 '로열허니 착한 토너'와 '로열허니 착한 에멀전', '로열허니 착한 클렌저'를 출시하고 이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저소득층 화상환자 돕기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제품들은 일반인은 물론 치료 후 보습 관리가 필요한 화상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존슨즈베이비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해외보건의료사업 내 영유아 영양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베이비내추럴 제품의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해 지난 4일 해외 빈곤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 '좋은 엄마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자 300여명과 함께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과 베이비내추럴 제품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 정신을 실천해왔다.

프리메라는 2012년부터 매년 4월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청춘, 그리고 지구야 힘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으로 구성된 '프리메라 프렌즈'가 프리메라와 함께 아파하는 지구와 청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으로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환경 보호 단체인 생명다양성재단에 기부한다. 올해는 미라를 씨드에센스와 일러스트 에코백으로 구성된 '프렌즈 세트'를 4월 한 달간 선보이고 수익금 일부를 생명다양성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